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2026/ No.143



+ 가정을 위한 기도

이해인

주님, 보소서

여기에 우리의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이 장소를

우리를 일치시키는 사랑을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과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맑은 하늘과

우리의 참된 벗들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조그만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을 말끔히 씻어주옵소서

모든 것에 인내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이의 소홀함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유쾌함과

조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노력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위험 중에서 용감하게

시련 중에서 항구하게

분노와 모든 변화 안에서 온화하게

그리고 죽음의 문에 이르러서도

서로 사랑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2	성시	가정을 위한 기도 · 이해인
04	말씀의 샘물	“네 골방에 들어가...”
06	선교편지	한수엘리를 기억하며 · 김명환 권선종 선교사
08		Joyeuses Paques! · 이기정 양소희 선교사
10	소그룹 사역	소그룹 리더 수련회 스케치 · 박재혁 목사
12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주 · 서동근 집사
13	교육부서 겨울사역	초등1부 소감문 · 초등1부 이수아
14		믿음으로 탑승완료 · 초등2부 이윤우
15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 고등부 어지민
16	종교개혁 순례	종교개혁지 순례 다녀왔습니다
18		종교개혁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20		내 인생의 전환점 · 강미량 은퇴권사
22		종교개혁지에서의 감동의 순간들 · 전성하 집사
24	교회 리모델링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28		2026년 영암교회 리모델링 개요 · 조규완 장로
32	지역교회 연합사역 소개	마마클럽 어머니연합기도회를 소개합니다 · 김정례 권사
34	미자립교회 방문	동행 : 상원교회, 하늘기쁨교회 방문기 · 손미선 권사
37	세례	이제는 저도 든든한 ‘뺑’이 있어요 · 정평우 성도
38	일대일 양육	하나님의 일하심 · 홍선기 집사
39		늦게 찾은 주님 품, 이제는 온전한 자녀로 걸어갑니다 · 강창운 성도
40		일대일 성경공부를 마치며 · 이향자 성도
41	여성경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재수강하며 · 김주는 권사
42		은혜로 채워진 여성경의 여정 · 신계영 피택안수집사
44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친밀감 · 염선영 성도
45	신임교역자 소개	신임교역자 소개 · 박목은 목사
46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 이육영 목사
47		첫사랑, 영암교회 고등부 · 나은채 전도사
48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영암교회 · 백양선 전도사
50	문화칼럼	누가 잠을 두려워하라! · 강진구 안수집사
52	영암소식	사역 일정과 사진
54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마 6장 6절)



유상진 담임목사

지난 한 달 사이 저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와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헤른후트. ‘주님(Herr)이 보호하시는 곳(Hut)’이라는 뜻

의 작센 주 작은 마을.

체코의 순교자 얀 후스의 후예이자 보헤미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모라비안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모여들자, 백작 진젠도르프가 자신의 영토를 내어줌으로 1727년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헤른후트.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아닌 선교적 공동체로 발돋움하여 1732년부터 전세계에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정신으로 설립된 베를린 선교학교를 졸업한 칼 귀츨라프는 가장 먼 곳으로 선교를 자원하여 1828년 태국 선교의 첫 씨앗을 뿌렸고, 1832년에는 충남 보령 고대도에 첫 발을 딛고 주기도문의 한글 번역, 한글의 우수성 전파, 감자 씨앗 보급 및 서양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헤른후트가 영적 진양지가 된 배경에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 부활의 동산 꼭대기에는 1790년대에 지은 탑 모양의 전망대가 있는데, 멀리 모라비안들의 고향인 체코와 폴란드가 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헤른후트에서 과거 100여년간 매일, 24시간 72명을 선발하여 쉬없이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헤른후트의 유일한 한국인인 홍명희 선교사님은 이 전망대를 기도탑으로 부르며 다시금

헤른후트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암교회 성지순례단원들을 열방을 향해 둘러서게 한 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태국 치앙마이와 귀츨라프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태국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6월 치앙마이 선교현장에서 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본부(CCT)를 방문하면서였습니다. 뜻깊은 것은 2026년이 한국선교사(조찬영 김순일)의 태국 파송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태국 현지 교단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라후 신학교는 태국 내 소수민족인 라후족 선교를 위해 설립된 신학교로 2004년 최인봉선교사님께서 부임한 이후 신학교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 신학생 20여명, 신대원생 14명이 매 년 입학하여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배출한 신학생이 400여명 가량 됩니다. 그 곳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태국 복음화를 향한 생생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둔 현재 복음화율은 다신교의 영향으로 1%대에 불과하지만, 교단들이 연합하여 “Love 타일랜드 111 운동”을 펼치면서 1백만명 전도, 1만 교회 세우기, 1만명의 목회자 양성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맥케인 병원(한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하며 미얀마 카렌 자치주에서 병원과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 신주용선교사님은 더위를 얼마나 타는지 팔뚝에까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얼굴은 소년같은 맑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심은대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며 반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노라고 백합니다.

3. 바르트부르크성(城).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비텐베르크성 교회 출입문에 95개의 공개 질문을 던졌던 마틴 루터는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때 그를 보호해 준 프리드리히 선제후에 의해 머물게 된 바르트부르크성. 보름스 재판 이후 그는 이 성에 머물며 10개월간 신약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는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개혁이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단순한 정치 혁명 혹은 사회운동이 아니었고 교회의 제도를 바꾸는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의 작은 골방에 10개월간 칩거하며 번역한 성경은 유럽의 교회와 역사를 바꾸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작은 마을 헤른후트가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 운동의 진앙지

가 된 것처럼, 1%대의 낮은 복음화율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도전하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현장처럼, 루터의 작은 골방이 왜곡된 교회와 세상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영적 위기와 혼돈의 시대 크고 엄청난 것을 바라기 이전에 일상속 골방에서부터 신앙이 영글어가며 기도로 깊어져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Y



루터가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바르트부르크성의 골방과 책상.

한수엘리를 기억하며



스위스에는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보다 우리와 더욱 가까운 ‘올리히’가 있습니다. 한스-올리히 예거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한수엘리’라고 부릅니다. 한스나 올리히가 철수 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지만, 이렇게 겹쳐서 부르면 아주 독특한 스위스식 이름이 됩니다.

1936에 태어나신 목사님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개혁교회적 경제관과 사회정의,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와 한국의 군사독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알프호른을 연주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츠빙글리와 같이 음악에 조예가 깊으셨던 목사님께서서는 손님들을 위해 즉흥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흥겨운 분이셨습니다.

90세 생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2월 17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은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아인지델른 개혁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츠빙글리가 수도원의 설교사제로 개혁을 외쳤던 바로 그 아인지델른입니다.

장례예배는 아인지델른 수도원의 신부님이 집례했

습니다. 목사님의 세대가 스위스 친구교의 갈등과 대립을 화해시킨 세대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예배당 전면 벽에 새겨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붙잡고 사셨던 말씀은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톨릭 신부님으로부터 츠빙글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신교, 구교, 복음주의 독립교단, 한국인, 일본인, 아프리카인, 모두 목사님 삶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스위스 교회의 연합을 위한 수고의 열매들은 오래도록 저희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요, 한수엘리!’

환자들의 날 예배

3월 1일은 ‘환자들의 날’로 스위스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만큼은 교회뿐 아니라 양로원과 병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르멘스도르프에서도 주일 예배를 양로원(AZAB)에서 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언덕 위 예배당까지 오기 어려워서서 권선중 선교사는 양로원 예배를 지속해서 늘려오고 있습니다. 입소문 덕분인지 올해에는 70분이 넘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권선중 선교사는 프랑스 콜마르 운터린덴 박물관에 전시된 ‘이젠하임 제단화’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

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상처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침례교회 예배

김명환 선교사는 취리히 침례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순회설교를 하다가 독립교회인 침례교회를 방문하니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설교 시간도 개혁교회보다 두배나 길고, 설교 후 같은 본문으로 성공 공부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했고, 한국 교회처럼 실시간 스트리밍도 있었습니다.

침례교회는 어찌 보면 재세례파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 시기 재세례파는 스위스에서 박해를 받고,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한국에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빛진 저희가 다시 이곳 스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Y**

기도제목

- 비르멘스도르프-애쉬 개혁교회 사역(주요행사, 5월 입교 교육 시작 6월 야외예배)
- 임시 목사님과 협력 및 새로운 목사님 청빙 위해
- 김명환 선교사의 순회설교 사역 위해
- 8월에 시작하는 김명환 선교사 목회 훈련 위해
- 주일에 마을에서 언덕 위 교회까지 운행할 셔틀 차량 구입을 위해(5년 이하의 중고 친환경 차량)
- 김이언, 김이신 신앙 양육을 위해
- 둘째 이신이가 2026년 김나지움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월에 시작하는 1년간의 입교 교육과 새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Joyeuses Pâques!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도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세상을 향한 책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과 부활절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동안 산책길을 오가며 부지런히 모은 나뭇가지들을 닦고 고른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잘라 만든 십자가로 부활절 강단을 꾸몄습니다. 7살 동생도 9살 형님도 십자가가 완성되자 고사리 손으로 안아 가슴팍에 안아봅니다. 높은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르노블은 부활절을 지나며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기운처럼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로 가는 길을 찾는 방법이 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동역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삶이 되는 성경 읽기

2026년 1월부터 하루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각 한 장씩, 삶의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년 성도 기준 절반이 함께 하고 있으며, 4월 두번째 주 기준, 구약은 출애굽기, 신약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독에 2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읽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 속도보다 중요한 삶이 되는 성경 읽기의 ‘방향’입니다.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 주의 깊게 읽고 또 특별히 기억되는 구절을 써 보며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 우리 영혼을 휘저으시는 경험 앞에 놓입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쉽지 않지만 함께 하니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맡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르노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보호하심을 누름돌 삼아 든든히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각자 속사람 안에 심겨지고 자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불한인교회 연합회 이야기

고난주간을 맞아, 재불한인교회 연합회(FECF)에서 주관하는 한 주간 연합 새벽기도회에 화요일 (3/31) 설교를 하러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재불한인교회 연합회는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16개 한인교회가 함께 하는 연합체로, 프랑스 개신교회연맹(FPDF)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연맹에 속한 개신교회만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교역자의 비자나 체류 자격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연합회를 이루어 프랑스 개신교회 연맹 안에서 협력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 동안 연합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래도 프랑스 내 한인사회는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6개 교회 중, 무려 열 한 곳이 파리 소재 교회이고,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각 한 교회씩 낭트, 스트라스부르, 리옹, 그리고 툴루즈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1년에 한 번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난해 처음 참석한 총회에서, 고난 주간에 재불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새벽기도회 설교를 하루 부탁받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소속 예배당을 찾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새벽 예배의 감격,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신앙의 열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설교를 하러 간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는 새벽 예배라 그런지, 감동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쿼를 다시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다. 이런 연합의 자리들을 통해, 프랑스 땅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몸 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Y**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그르노블 한인교회 공동체 위에 새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 재불한인교회 연합회(FECF)에 함께 하시고 서로의 연합을 통해 프랑스 땅에 있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소서
- St. Marc 커뮤니티 협의체를 통한 교제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주님과의 깊은 사귀를 통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 프랑스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 서울이와 유안이가 예수님만 온전한 주로 고백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 프랑스에서 대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서울이와 유안이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소그룹 리더 수련회 스케치



박재혁 목사

26년 3월 18-19일 제주에서
의 1박 2일 소그룹 리더 수련회
는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시
간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
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
도 깊은 숨-쉬이 되었고, 매여
있던 몸과 마음이 숨-쉬를 통
해 다시 생명을 얻는 시간이었
습니다. 갇혀 있던 생각마저도 새 숨결 속에서 생동하
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수련회에 앞서 진행된 교역자 수련회를 통
해 담임목사님과 함께 제주 땅을 밟으며 기도할 수 있
었고, 당회원 장로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소그룹 사역
을 담당하시는 길학철 장로님과 임원들의 헌신과 열
정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주 땅에서 마음
껏 숨을 쉬고, 숨을 고르며, 새 숨을 충전하는 시간으
로 영암의 리더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다
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며 시작된 ‘영적 리모델링
(RE-modeling)’의 기도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영적
리빌딩(RE-building)’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
슴 벅찬 예배와 깊이 있는 말씀, 함께 드리는 기도와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김평래 목사님께
서는 방주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건축적
으로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자연 속에서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서의 방주교회와 그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

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혼의 심 가운데 하
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존재의 회복과 생명
의 충만함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모양의 교회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을 꿈꾸었던 건축가 이타미 준의 숨결을 담고 있으며,
구원의 방주로서 제주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 속에서 방주교회를 첫
일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주가 회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영암교회와 한국교회가 빛과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은, 동남교회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
이해 주셨습니다.

남선교회 주관 수요기도회 가운데 영암교회가 특송
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 말
씀을 통해 담임목사님께서 출애굽의 전 여정 속에
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영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시간에 제종원 목사님께서 제
주 땅과 동남교회의 역사를 나누어 주셨고, 순종의 열
매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해 맺어진다는 귀한 말
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리더란 ‘잘 웃는 사
람’, ‘항상 배려하는 사람’,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이라
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
니다.

둘째 날 아침은 숙소에서 매일성경으로 말씀을 묵
상하고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는 영암의 리더
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빛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맑은 공기와 눈부시게 푸른 하늘, 보

석처럼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마음과 사진에 담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분주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호흡이 다시 생기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9대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순간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영암교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걷고(同行), 함께 나누며(同伴), 함께 기뻐하는(同樂)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아름답

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일정이었지만 생명의 땅 제주에서 영혼의 깊은 숨쉬음을 경험하며 새롭게 재충전(RE-fresh)되는 상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해 30·40 리더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58명의 영암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함께한 참으로 소중한 수련회였습니다. Y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주



서동근 집사

영암교회 리더 수련회가 2026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다시 찾은 것이 5년 만이기도 하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과의 시간이어서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소 한반도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땅이 있다면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로마서 1장 20절) 그리스도인의 사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마태복음 18장 20절)을 영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더 기대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첫 일정은 방주교회를 방문하여 방주교회가 설립된 배경과 그 사역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교회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재일 한국인 유동룡(일본명: 이타미준)이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아 물 위에 떠 있는 형태로 보이도록 설계하였는데, 2010년 한국건축가협회 본상을 수상할 정도로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매년 20~30만 명이 찾는 제주의 명소라고 합니다. 방주교회는 약물중독자 사역, 인근 거주 환우들에 대한 사역 등 건물의 외양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오후 일정으로는 서귀포 자연휴양림과 해녀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돌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청량한 자연휴양림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서귀포 바다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제주동남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제종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여 30년 넘는 기간 동안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이곳에서 사역을 지켜온 목사님의 삶 자체가 이미 가장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제주동남교회에서 준비해주신 한라봉과 감귤과즙을 조원들과 함께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나눔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흐리고 숙소로 향하던 오후 늦게는 비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날씨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화창했습니다. 오전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눈부시게 쏟아지는 제주의 이른 봄 햇살과 얼굴을 감싸는 제주의 시원한 바람이 주는 위로가 더 바랄 것 없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성산일출봉 돌레길을 함께 걸었으며 오후에는 보름왓(바람밭)이라는 식물원에 들어서 돌아보고 함께 차도 마셨습니다. 영국에는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의 이번 수련회는 영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조와 함께 해주신 주님, 운전으로 수고해주신 박목은 목사님, 이금 권사님, 한옥경 집사님, 이신혜 자매님과 함께 신앙하는 삶에 대하여 나누고 배울 수 있어서 더 감사했으며 수련회를 준비해준 사역자님들과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Y**



초등1부 소감문



초등1부
이수아

안녕하세요, 초등 1부 3학년 이수아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는 “나는야 갓(God) 생 마스터”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평소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질문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궁금증으로 가득찼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소감문을 쓰면서 성경학교 때 받았던 색칠공부 비밀지도를 다시 꺼내어 보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과, 천국 파티에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초대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후에 모두 다함께 애슐리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정말 커다란 키즈카페로 이동하여 신나는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3학년 친구들과는 함께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트램펄린에서 같이 뛰기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을 즐겁게 마무리한 후에, 주일인 둘째 날에도 목사님은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성경에 관한 또 다른 질문들을 모아오셨습니다. 특히 저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매주 주일 저녁에 꼭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집을 떠올렸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스마트폰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눈에도 안좋고 게임같은 것에 중독될 위험도 있어서 제한을 걸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과 초등1부 동생들은 나는야 갓 생 마스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진짜 갓 생 마스터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Y

믿음으로 탑승완료



초등2부
이윤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2부 사랑반 이윤우입니다.
이번 초등 2부 주제는 <믿음으로 탑승 완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일찍 초등 2부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서 하루 동안의 일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모두 함께 기도한 후 버스에 탑승해 롯데월드로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설레고 기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롯데월드에 도착해 보니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이야기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놀이기구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걸어 다녀서 다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짜릿하고 신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에는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 주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비행기를 날려 보며 즐거운 활동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고등부
어지민

익숙한 생활을 3년간 하다가 고등부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낯설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끔 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학업 스트레스도 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수련회에 와서도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저를 긴장으로 이끌었고, 그 긴장은 또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출애굽기 관련해서 어성경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는 게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오래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근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성경 특강에서 든 이생각은 썩이 되어 다음날 집회 설교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방식으로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내 생각, 주관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저의 발목을 붙잡던 걱정을 떨쳤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하시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고등부 선생님,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

종교개혁지 순례 다녀왔습니다



영암교회 27명의 순례단이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9박 11일의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길에 올랐다. 13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였다. 7시간의 시차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첫날 독일의 아이제나흐에 있는 호텔에 묵었다. 이곳은 마틴 루터의 10대 시절 다니던 학교가 있는 곳이며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둘째 날부터 순례단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다. 바르크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잘 지은 성 중 하나인데 당시 작센의 프리드리히 제후가 성주였으며 프리드리히 제후는 교황에게 파문당한 마틴 루터가 머물 수 있도록 이 성을 제공했다. 마틴 루터는 멋진 풍경과 화려한 실내를 뒤로하고 하

인들이 머무는 건물에서 불편한 잠을 자며 오직 성경만은 번역하며 지냈다. 검소하고 좁은 실내공간과 여러 방을 꽉 매운 성경책들을 보며 당시 마틴 루터의 열정과 헌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에서 내려와서 루터가 공부하던 에르푸르트 대학과 신품 서원을 받은 대성당을 방문하고 라이프치히

광장을 마지막으로 하루 일정을 끝냈다. 라이프치히의 성토마스 교회는 루터가 종신 서원을 한 곳이며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묻혀있는 곳이기도 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며 교회안에 자신의 무덤 공간을 할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바흐의 삶과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성당과 바로크 건축양식의 루터교회가 있던 드레스덴, 하이델베르크 성과 교회, 루터가 재판관을 받았던 보름스 교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두 번째 나라로 마틴 루터보다 100년전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얀 후스의 행적을 따라 체코로 이동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프라하에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즐비했다. 현존하는 중세양식 성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프라하성을 비롯하여 블타강 위에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카를교, 프라하 최대 변화가인 바츨라프 광장과 거기 위치한 시계탑은 여행프로그램에서 홍보하는 관광지들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순례단의 눈이 즐거웠다면 얀 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와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타보르와 후스광장을 방문할 때는 숙연함마저 느꼈다.

은 이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행하며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 순교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느꼈다. 후스는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재판도 없이 화형당해 당시 성도들은 종교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타보르였다. 그곳에서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카타콤과는 차원이 다른 지하세계를 볼 수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에서 큰 위세를 떨쳤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거쳐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했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으며 신학아카데미 취리히 대학을 세우고 그로스 뮌스터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취리히에서 비스멘스도르프를 거쳐 제네바로 이동했다. 제네바는 칼뱅이 종교개혁지였으며 왕립묘지안에 비석이 없는 칼뱅의 묘지도 보았고 칼뱅의 설교 이후 개신교가 된 생피에르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곳의 작은 예배당에서 순례단은 유럽인들에게도 익숙한 멜로디인 '나같은 죄인 살리신'과 '좋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땅에 울려퍼지는 찬양에 현지인들이 눈물어린 감사로 화답했으며 찬양을 마칠 때에는 '주여,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튿날은 루체른으로 향해 알프스의 정상을 향했다. 가이드님의 말에 의하며 '열번에



중세에는 성찬식을 할 때 일반 신자들은 빵만 받고 포도주는 받을 수 없었다. 후스는 성경대로라면 포도주도 받아야 한다며 베들레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베풀었다. 거기에 더해 초대교회 처럼 자국어 설교해야 한다며 당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던 성도들에게 자국어 설교를 했다. 순례단



한번 오는 날씨 좋은 날'이
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
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권사
님들이 공궤해주신 맛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으
며 여행의 막바지를 향해
갔다.



번 유럽 복음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9박 11일의 모든 여정을 마
치고 모두 무사히 귀국했다.
서로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정을 밝은 모습으로
소화해낸 순례단 모두 아쉬움

이후 프랑스로 이동하여 스트라스부르와 카를스루
에를 방문했다. 칼뱅이 3년간 사역한 성 니콜라스 교
회와 성토마스 교회, 방패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방패
교회는 이미 개인소유여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개신
교의 역사 유적지가 사고 팔리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

을 뒤로 하고 헤어졌다. 여행기간 내낸 인도자와 보호
자가 되어주시고 멋진 사진을 찍어주신 유상진 담임
목사님, 일정을 진두지휘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최에스겔 목사님, 깊은 지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
신 가이드님과 여행을 총괄해주신 이원상 대표(영락
교회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종교개혁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과거 종교개혁지에서 현재 선교지가 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
났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체코 프라하로 이동할 때 국경
지역이 있는 헤른후트에서 사역하시는 홍명희 선교사
님을 만났다. 헤른후트 지역을 안내받았으며 현재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얀 후스의
추종자들의 신앙공동체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 진
젠도르프 백작의 보호 아래 헤른후트에 정착하게 되
었다. 현재는 타 종교 사람들의 이주를 허락하고 있으
며 선교사님 자녀들이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입체적
별의 제조, 판매하는 공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제네바로 이동하던 중간에 비르 맨스도르프에서 김명환, 권선중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 두 선교사님은 스위스 현지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맡아 사역 중이며 현지 교회에서 만남을 가졌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소수의 신도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 수 없는 사역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일정 상 프랑스를 방문할 수 없던 순례단을 찾아 이기정 선교사님이 제네바에 직접 방문하였다. 척박한 선교 환경 가운데에서도 밝은 웃음과 사랑을 잃지 않

으시는 이기정 선교사님을 보며 유럽의 재복음화를 간절히 소망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선교사님들 모두 영암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작은 열매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새벽에 배에서 돌아가면서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직접 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일정별 정리〉

1일차: 출발

2일차: 독일 아이제나흐(바르트부르크성) - 에르푸르트 - 슈토테른하임 - 라이프치히

3일차: 비텐베르크 - 드레스덴(젠퍼오페라하우스)

4일차: 헤른후트(홍명희선교사) - 체코 프라하

5일차: 타보르 - 체스키크롬로프 - 체스키부데요비치

6일차: 오스트리아 팔츠카머гут - 팔츠부르크

7일차: 인스부르크 - 스위스 취리히

8일차: 취리히 비르멘스도르프교회(김명환 권선중선교사) - 제네바(이기정선교사)

9일차: 루체른(필라투스, 카펠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뽀띠프랑스) - 독일 카를스루에

10일차: 하이델베르크 - 보름스 - 프랑크푸르트(출발 및 도착)

(글: 안태연 영암지 편집위원)

내 인생의 전환점



강미랑 은퇴권사

영암학당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현장을 가 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교회 성도님들과 종교개혁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체질이 약한 편이라 건강이 살짝 염려되었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고 순례팀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떠나는 순례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14시간 비행이 평소와는 달리 힘들지 않아서 출발부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암의 순례팀과 함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개혁교회의 선구자인 루터, 얀 후스, 츠빙글리, 칼뱅의 종교개혁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의 열정과 생명을 바친 헌신의 삶의 여정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루터가 카톨릭교회를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와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르트부르크의 ‘루터의 방’을 보면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체코에서 맞이한 주일에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얀 후스’가 시무하시던 베들레헴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카톨릭교회가 사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성경으로 예배드리며 성찬식에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던 시절에 얀 후스는 자국어로 설교하며 이종배찬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베들레헴교회에서 영암순례팀과 드리는 주일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성찬식을 통한 은혜는 “이제 나의 남은 인생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주님께 꼭 붙잡힌 인생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주신 특별한 은총의 예배와 성찬식이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개혁자 츠빙글리의 카펠 기념비에는 ‘너희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서강해의 전통을 수립하고 개인의 경건보다 공동체의 삶을 강조한 츠빙글리는 스위스 국민의 구원을 갈망한 애국자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칼뱅의 도시였습니다. 이 곳에는 칼뱅이 목회했던 생 피에르교회, 칼뱅의 사택, 칼뱅의 무덤, 종교개혁자 기념조형물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칼뱅은 종교개혁 1세인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2세대 종교개혁자이며 개혁교회의 신학을 종합한 완성자라 볼 수 있습니다.

칼뱅은 믿음의 칭의와 거룩한 삶의 성화를 동시에 강조함으로 균형잡힌 개혁을 이루었으며 개인과 교회와 세상까지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그의 개혁운동이 교회를 너머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며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가운데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개혁자들처럼 오직 예수님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스위스 김명환, 권선종 선교사님과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 헤른후트의 홍명희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급한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삶의 현장을 보며 21세기에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지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며 또 다른 믿음과 순종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순례여정을 위하여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신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최에스겔 부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례여정 아침마다 말씀묵상과 찬양으로 시작하여 현장에서도 사랑으로 섬겨 주신 그 사랑을 오래 기억하고 배우겠습니다.

영암교회의 축소판처럼 (당회, 은퇴장로, 권사님, 안수집사회, 소그룹, 행정실, 신협, 로템, 교회학교, 예배찬양, 남녀선교회) 다양한 구성팀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적 리모델링을 시키시려고 걱정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하여 사랑하는 순례팀 모두에게 각자의 고유한 성품과 사역에 맞게 풍성한 은혜와 성찰로 영적 리모델링을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협력이 있었듯 은혜로운 순례를 위해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두가 성령충만하고 은혜로운 순례여정이 되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흘러 넘치길 기도드리며 순례팀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



종교개혁지에서의 감동의 순간들



전성하 집사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10일간, 유상진 담임목사님, 최에스겔 부목사님 그리고 저 포함 26명의 영암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유럽 5개국(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종교개혁지 순례는 저에게 매우 뜻깊은 여행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떠나는 종교개혁지 순례길이라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이른 아침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순간부터, 이번 여정은 이미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한 후 아이제나흐로 이동하며 시작된 순례는 루터의 발자취와 종교개혁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성, 비텐베르크 성교회, 에르푸르트와 라이프치히 등 주요 개혁지들을 지나며, 저 자신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깊은 감동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특히 감사했던 점은 평소 교회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이동과 하루하루 바쁜 일정, 피곤함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웃음을 나누며 한 공동체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함께한 이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순례지를 다니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이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멜란히톤, 갈뱅, 츠빙글리, 진젠도르프 백작 등 수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개신교가 존재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하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역사로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개혁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 가운데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체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드린 성찬 예배였습니다. 불행히도 더이상 예배가 드러지지 않는 교회였지만 우리 일행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시간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엄숙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안 후스의 신앙과 희생을 떠올리며 드린 예배는 제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개신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오히려 선교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적지 않은 충격도 받았습니다. 신앙의 시작이었던 땅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곳이 되었다는 현실은

세계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들과 도시들, 그리고 역사적인 교회들을 둘러보며 저의 눈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해 제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속에서 단순히 믿음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 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여정을 평생 기억하며, 작은 자리에서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아멘. Y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처소에서의 예배-

영암교회는 상반기 동안 잠시 광야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번 장막을 세우고 헐고,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말이지요. 본당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 잠시 본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찌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암지는 그 기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지면에 남겨보고자 합니다.

10월초까지 진행되는 리모델링 기간 중에서 공사 시작부터 3층 대예배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인 1월 25일(주일)부터 6월 7일(주일)까지 대광중학교 체육관과 교회식당(실시간중계)에서 9시 2부예배와 11시 3부 예배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대광중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광학원 행정실장님이신 신순주 집사님께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러 모로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낯선 곳에서 출입도 답지도 않게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매 주말이면 체육관을 예배장소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피택자 교육과정 중에 계신 분들과 남녀 선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조를 나누어서 청소와 의자정리를 해주셨고, 각 찬양대와 당회원, 권사회, 안수집사회, 종교개혁지 순례팀 등 많은 팀들이

다시 예배장소를 체육관으로 돌려놓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광중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던 5개월의 시간 중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학교 체육관이라는 낯선 곳에서 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교육관 2층 식당에서 마치 이제 막 개척한 상가교회의 느낌으로 새벽예배를 드리기 하였습니다.

5개월의 광야 세월을 마치고 우선 소예배실로 예배처소를 옮기기 위하여 다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광중학교로 가 있던 물품들을 교회로 운반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남녀 선교회원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은퇴여전도회에서는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수박과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값진 경험을 했던 은혜로운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당 공사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ing)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Y



2026년 영암교회 리모델링 개요

자료정리 : 조규완 장로

영암교회 성전 건축 및 리모델링 역사

1954년 11월14일 영암교회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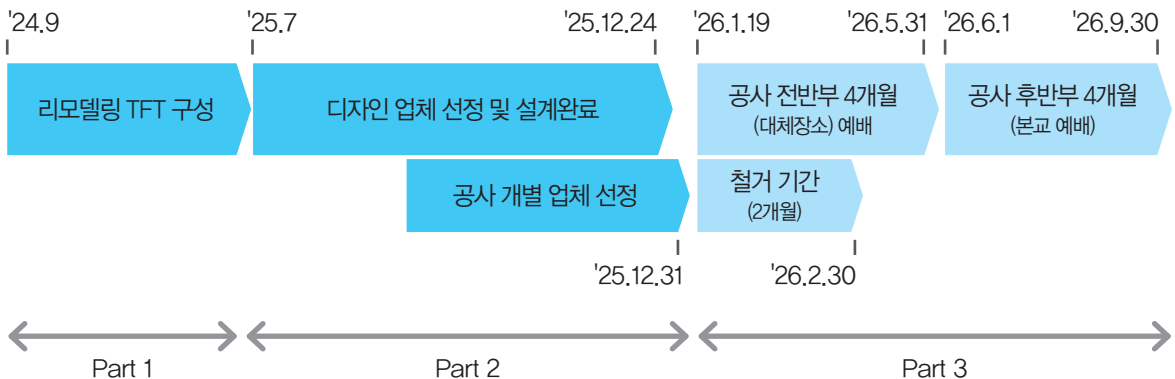
1979년 교회 최초 신축(제3대 담임 故 임옥 목사님)

1986년 드림센터(교육관) 신축, 2018년 리모델링

– 2023년 본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이전 냉난방 및 전기설비 부분적 리모델링)

– 2024년 창립 70주년 기념 본당 리모델링 추진

리모델링 전체 Milestone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모음



1층 로비 철거작업1



1층 로비 철거작업2



2층 로비 철거 및 시공



2층 소예배실 공사 현장



2층 식당앞 철거 현장



3층 본당 공사 현장1



3층 본당 공사현장2



3층 본당 천장 공사현장



3층 본당 철거 현장



3층 본당로비 공사 현장

리모델링 전, 후 변화

3층 본당 내부 _ 전면

리모델링 전



- 전반적으로 어둡고 침침함
- 무대강단의 협소함, 어둡고 차가운 느낌
- 천정의 공기환기 시스템 및 냉난방 노후화
- 좌석 창가쪽 방음 및 방열 시스템 전무
- 음향, 조명 시스템 낙후

리모델링 후



- 교회 ID는 존치 (정면 스테인드 글라스 및 좌우벽 부조)
- 따뜻하고 밝고 넓은 느낌의 안락한 예배 분위기
- 천정의 공기환기 시스템 및 냉난방 전면 교체, 디자인 현대화
- 좌석 창가쪽 방음 및 방열 시스템 및 통로 확보
- 음향, 조명 시스템 전체 개선
- 전면 무대강단 대형 LED 시스템 구축

3층 본당 내부 _ 후면

리모델링 전



- 본당 후면 디자인 전면 개선(대형 LED 및 방송실 등)
- 본당 출입문 전면 교체
- 중앙통로 및 창가 좌우 통로 확보

리모델링 후



3층 본당 내부_후면

리모델링 전



- 어두컴컴한 분위기
- 냉난방 열악(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 로비 활용도 저조

리모델링 후



- 본당 로비 밝기 개선 (따뜻한 분위기 조성)
- 방열처리 개선 (로비전체 따뜻함)
- 로비활용도 개선 (소규모 미팅 및 담소 장소 활용)

3층 본당 로비 후문

리모델링 전



- 로고스웨이 출입구에 방음, 방열 시스템 전무
-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

리모델링 후



- 밝은 이미지로 디자인 개선 (따뜻한 분위기 조성)
- 방열처리 개선 (이중 단열 시스템 도어)
- 로비활용도 개선

2층 소예배실 로비

리모델링 전



- 어두컴컴한 분위기
- 냉난방 열악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환경)
- 로비 활용도 저조

리모델링 후



- 따뜻한 분위기로 밝기 개선
- 방열처리를 개선하여 로비전체를 따뜻하게 개선
- 로비활용도 향상 (소규모 미팅 및 담소 장소 활용)

1층 현관 로비

리모델링 전



-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한 분위기
- 냉난방 열악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환경)
- 교회 출입 시 첫인상이 좁고 어둡고 차가운 느낌
- 로비 활용도 저조

리모델링 후



- 전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개선
- 로비 전체가 따뜻하게 방열처리 개선
- 로비활용도 높임 (새가족부 환영 중심)
- 전면부에 대형 LED 부착
- 2중 도어시스템으로 방음, 방열 개선



1층 재정부/행정실, 신협, 교역자실, 새가족부 모두 리모델링 하지만 새가족부 이미지만 표현 함.

- 차가운 분위기의 로비 공간
- 새가족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
- 불편한 신협 위치



내부 모습

- 기존의 구식 사무실에서 현대식 오픈 공간 및 정감있고 따뜻한 분위기로 전면적 개선 함.

마마클럽 어머니연합기도회를 소개합니다



김정례 권사

안녕하십니까, 김정례권사입니다.

마마클럽? 이게 도대체 뭐야?
마마 어머니클럽?

저도 처음에는 이 뜻을 몰라 주변분들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게 2년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건 어머니 기도지, 아이를 둔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마마클럽이 영암교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암튼 첫 마마클럽 어머니기도회가 있다 하여 부목사님과 여러 권사, 집사님들과 성복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는 없지만 우리나라, 우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지식이었는지 너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에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기도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8개의 영역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북한, 다음 세대, 선교와 열방,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서울, 가정,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 각자 기도영역을 맡은 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 기사와 정보들을 가지고 기도문을 완성시키며 이 기도문은 오전 7시에 전국 마마클럽 회원들에게 동시에 전해져서 이를 읽고 아멘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는 매월 1회 배정된 교회에서 오후2시부터 시작하여 2시간 예배와 기도로 뜨겁고 간절한 통성기도가 열립니다.

성북구의 기도하는 어머니 용사들이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연천에서 제주까지 퍼져있는 전국 마마클럽 기도회원들이 부산 수영로 교회에 모두 모여 점심을 금식하며 6시간을 뜨겁게 기도 모임을 갖고 돌아가 각 교회의 파송원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 과정을 3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마마클럽 기도의 시작은 수영로 교회 권사님 여섯 분으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드러나고 삶의 체험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암에도 마마클럽 기도문을 90여명 가까이 매일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마마클럽 기도를 통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마클럽은 교파를 떠나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큰 뜻을 품고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지금도 기도회가 있기 1주일 전부터는 성북구 대표 권사님들의 뜨거운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구 중 6개 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년 2회는 서울 전체 어머니연합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동작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가 태동하고 있고 5월 21일 성동구 왕십리교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마클럽기도 모임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김정례권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주변분들에게 문의하여 카톡에 초대 받으시면 매일 기도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암교회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영암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

동행 : 상원교회, 하늘기쁨교회 방문기



손미선 권사

#1. 가는 길

동이 트기 직전,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려는 어간에 사람들이 속속 교회 앞 버스에 올라탔다. 2026년 4월 7일 오전 6시. 오늘은 교회에서 후원하는 자립대상교회 두 곳을 방문하는 날이다. 경북 영덕

에 위치한 상원교회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늘기쁨교회. 내게는 초행길이고 하루종일 걸리는 장거리 일정이란 다소 상기된 마음이었다. 은혜롭고 안전한 방문길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출발하니, 날이 밝았다.

아침을 먹기 위해 들른 콩나물국밥집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 합류해서 총 20명의 인원이 따뜻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디저트인 커피와 딸이 그득한 묵직한 단팥빵을 손에 들고 탑승하여 목적지인 상원교회로 향했다.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느라 부족했던 잠도 자고, 창 밖에 펼쳐진 봄꽃들의 향연을 보며 감탄하다보니, 어느덧 영덕의 축산향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실 분들은 여기서 갔다오는게 좋을 거라는 목사님 말씀이 떠올리며 열악한 교회 상황을 상상하며 항구를 지나 한적한 농촌 마을로 진입했다.

#2. 상원교회

내 상상과는 달리, 눈 앞에 파란 지붕에, 아이보리 담벼락에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 벽화가 그려진 깨끗하고 아담한 교회가 보였다. 지팡이를 짚으신 백

발의 남자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 알고 보니 상원교회 김영자 담임 목사님의 부군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집사님이셨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쾌활해 보이는 김영자 목사님이 연신 미소를 지으시며 구수하고 맛깔난 경상도 사투리로 교회 소개와 간증을 들려주셨다. 목사님이 2021년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교회에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 다해서 7명이었다고. 여름만 되면 수해를 입어서 교회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난방도 안돼서 찬 바닥에서 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단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창고 같으니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네요. 교회 이~쁘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보내주세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젊은 청년들을 보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됐다고 기쁘게 간증하셨다.

그리고 영암교회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장지우 원로장로님이 말씀해주셨다. 상원교회는 1952년에 장 장로님의 외조모이신 권영수권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와 인연이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외조모님과 상원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장로님 표정에서 감회가 남달라 보이셨다.

현재 상원교회는 주일 낮 예배는 15-17명, 수요일 예배는 오후에 7명, 저녁에 5-6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시골 교회가 도시 교회의 산파(모판) 역할을 감당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유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존속하고 자립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목사님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했다.

이후 식당에 가서 맛난 점심을 먹고 상원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받아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못내 아쉬웠는지 김 목사님이 버스에 올라오셔서 장로님 등을 힘있게 두드려주시며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그 모습을 본 여기저기서 “저도 두드려 주세요.”하는 바람에 버스 안 순회 안찰(?)을 해 주시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3. 경유, 쉽

영덕에서 안성으로 가는 길에 영주를 경유해서 갔다. 영주에도 자립대상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몇몇 교회들이 최근에 자립 선언을 해서 운영이 잘 되는지 염려가 된다고 유상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영주에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영주의 핫플 카페 녹스고지. 티타임을 가지며 잠시 쉬의 시간을 갖고 안성으로 출발했다. 영주 시내에 흐드러지게 만발한 벚꽃을 감상하며 자립대상교회에 방문하는 길, 창 밖 꽃구경은 하나님이 주신 덕이었다.

#4. 하늘기쁨교회

안성에 도착하니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먼저 식사를 하고 교회로 가기로 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과거에 영암교회 유아부 교역자이셨고 현 하늘기쁨교회 담임이신 이윤희 목사님과 배우자이자 동역자인 정재후 목사님이 우리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다.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안부를 물어보고 손을 꼬옥 잡아주시는 이 목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하늘기쁨교회로 이동했다. 어둠 속에서 ‘하늘기쁨교회’ 명판과 침탑 위 십자가가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예쁘다’는 말이 새어나왔다.

2019년 10월 6일에 창립한 하늘기쁨교회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사역을 이어오다가 서울 지역 한 노회의 여전도회가 30여년간 정성껏 모은 헌금을 지원 해주셔서 현재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매입하셨다고 한다. 영암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귀한 고백이 담긴 헌금으로 건축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6년 3월 5일 헌당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영적인 상황, 필요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의 음성에서 간절함과 열망이 느껴졌다. 동네 토박이 주민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이고, 마을에 100년 된 엄나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이 나무에 제사를 드리면서 마을 축제와 주민 단합을 한다고 한다. 교회가 있는 죽리 옆 동네인 내리에는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고, 근처에 중앙대 다빈치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앞으로 어린이들 전도를 위해 교회에 간식 거리를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단과 우상 숭배로 영적 어려움이 있는 안성 지역에 훈련된 동역자, 초신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이주민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목사님 내외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다. 나오는 길에 목사님 부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선물들을 하나 가득 받아서 버스에

몸을 신고 서울로 향했다.

#5.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 받은 선물들과 은혜로 두 손도, 마음도, 배도 충만해졌다. 교회와 지역 사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김영자 목사님, 이윤희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환대에 감동했고, 오가는 길에 식사와 차를

공궤해 주신 장로님들과 맛난 간식들로 섬겨주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의 사랑의 섬김에 감사한 하루였다. 밤 10시 30분. 자립대상교회 방문 중 가장 긴 일정이었다는 목사님 말씀에 안전 운행해주신 집사님, 그리고 모든 일정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Y





이제는 저도 든든한 ‘빡’이 있어요



정평우 성도

지난 2020년, 직장암 선고
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였습니다. 같이 일하며 알게 된
‘도희’라는 동생이 찾아왔습니
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도희네
가족과 친가족처럼 가깝게 지
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도희가

제게 “오빠, 교회 한번 가 보지

않으시겠어요?”라며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다니는 중앙성결교회 부흥회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저에게 그곳에서 들리
는 성경 구절들이 신기하게도 마음 깊이 와닿기 시작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
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
나기도 했습니다. 도희 집사는 그 후로도 “오빠, 꼭 교
회 다니세요”라며 진심으로 저를 전도했습니다.

당시 혼자 살고 있던 저를 위해 도희 집사는 집 근처
에 있는 교회를 함께 알아봐 주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영암교회가 있었고, 도희 집사는 “혹시나 오빠가
나중에 또 아프더라도, 집 근처 교회에 다니면 구역
식구들이 돌보아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으니 참 좋
을 것 같다”면서 영암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동생
의 따뜻한 권유로 교회에 등록한 뒤 열심히 신앙생활
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을 괴롭히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고, 일상 속에서 나
도 모르게 감사할 일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직장암이 또다시 재발했다는 청
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암
소식에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2남선교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도희 집

사가 다니는 중앙성결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도희의 고모님까지 정말 많은 분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
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무사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과정을 겪으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주일 성수
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도희 집사는 제가 영암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던 날과 세례를 받던 날에는, 같
이 일하는 선자 동생과 함께 제 교회를 찾아와 꽃다발
을 건네며 저의 새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든든한 ‘빡’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여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간절히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

하나님의 일하심



홍선기 집사

초등학교 5학년 지금의 초등 2부에 속할 나이에 영암교회로 부모님을 따라 옮겨왔던 때가 기억납니다. 교회를 걸음마할 때부터 다녔는데 영암교회 소년부에서는 ‘새신자’반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드림센터 위치에 있던

한옥집에서 새신자교육을 4주간 다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왜 내가 새신자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시작하면서 접한 나의 모습은 왜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초등학교 5학년때 영암교회 교육관 새신자반에서 당황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모임을 하면서 내가 전도한 000성도님과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하려고 패기있게 시작했지만 거의 새신자와 같은 내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거쳤던 그때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수학의 정석’을 펼치고 있지만 집합부분을 넘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만 열심히 공부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25년 5월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에 양육자권사님이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양육자 권사님의 관심과 권면 덕분이었습니다. 25년 6월 22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며 부담스러웠던 예수와 바쁜 주일오후시간, 토요일까지 시간

을 쏘아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탁에 성경책과 일대일양육교재를 펼쳐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습, 복습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권사님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성령체험과 신앙경험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깊은 교제가 쌓여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구절이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며 입에서 암송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말씀나눔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에 빠진 분들과 새신자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일대일양육 동반자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입니다.

지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양육자 박명현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

늦게 찾은 주님 품, 이제는 온전한 자녀로 걸어갑니다



강창운 성도

열여섯 번의 만남의 양육은 초신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영적 지식의 통로이자,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한 자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는 무지개를 찾아 긴 꿈을 꾸듯 살아왔습니다. ‘상식은 내가 하는 행동이 기준일 것’이라는 내 본위의 생각에 가득 차, 가족과 주변에 나만의 잣대를 내밀어 왔습니다. 집안은 불교와 친숙한 분위기였고 아내와 순응하며 산사를 찾아 었드렸고, 그것이 몸에 밴 당연한 도리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 내 실력과 노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만감이 제 삶의 근간이었고, 그것이 스스로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보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참으로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은 예수님에 대한 저의 무지와 교만함을 깨뜨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충만, 시험, 순종, 사역’의 각 단원에서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발자취를 김웅태 장로님의 영적 체험의 말씀과 함께 수업 받았습니다. 사람의 원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진심으로 깨달아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지난날의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보이고,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암기 성경 구절이었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마음에 대가 없이 구원의 열차에 탄 ‘무임승차자’ 같은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격려로 양육해 주신 김웅태 장로님과 영암교회라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다른 분들처럼 깊은 신앙과 연륜은 없지만, 이제는 내 주를 가까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일대일 성경공부를 마치며



이향자 성도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정리하며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하나 연결되며 복음의 핵심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하고 말씀 읽기와 기도,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은 혼자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대일 성경공부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Y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재수강하며



김주은 권사

며칠 전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 권사님께서 “여성경 재수강자로서 영암지에 실을 소감문을 써보면 어떨까요?”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오, 노우!’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경 수업을 들으며 권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소감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에 여성경 첫 번째 수강을 했습니다. 2025년도 여성경 수업은 놀라움, 긴장,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여성경은 첫 시간부터 폭포수가 쏟아지듯 2시간 동안 많은 양의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PPT를 보며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1.5배속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에 놀라고 또 강의 준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와우’를 연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업이 거의 1.5배속으로 흘러가기에 잠시라도 탄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긴장하며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 중에 울컥울컥 밀려오는 감동과 평안함! 참 다른 느낌의 두 단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웬지 모르게 재수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강을 듣는 2026년은 여유롭고, 또 뭔가 좀 더 깊은 곳 아니면 더 넓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올해는 복습하는 자의 여유를 누리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많이 기억나고 어떤 부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면 아는 내용이라서 반갑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새로워서 좋습니다. 재수강하면서 달라진 부분이라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것이라 주실 줄 믿기에 이 상태도 매우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 여성경 수업을 안 들어보셨다면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매우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감사합니다. **Y**

은혜로 채워진 어성경의 여정



신계영 피택안수집사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게 되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가르치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막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니 바쁜 일상 탓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부연 권사님께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수업을 추천해주셨고, 아내 역시 “이번 기회에 우리 꼭 함께 해보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주저하던 저를 생명의 말씀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길을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어성경’ 수업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긴 이야기를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간 쉬는 시간이 단 3분밖에 주어지지 않을 만큼 숨 돌릴 틈 없이 뽀뽀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내심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 번째 수업들은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매주 주어진 성경 읽기 분량을 채우고 강의를 듣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는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기보다는 그저 ‘끝까지 해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제 연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시간에 쫓기듯 지나간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제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겼습니다.

처음 1년을 마치고 나니 제 안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의 흐름을 단 한 번 듣고 끝내기에는 제가 이해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음 해 ‘어성경’ 수업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직 기간과 맞물렸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한 번 지나왔던 길을 다시 걷는 것처럼, 두 번째 수업에서는 비로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이해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휴직 중이라 해도 과정 자체가 마냥 쉽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여러 일상 속에서 매주 성경 읽기와 수업 참여는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성정’을 진행하며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은 바로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지는 ‘진주나눔’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어려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주나눔’을 하다 보면 그 복잡함이 은혜로 바뀌곤 했습니다.

강의로 배운 지식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나눌 때,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진솔한 나눔을 들으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저의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도 서로가 위로를 얻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수업을 듣기만 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어성정’ 과정을 거치며 저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거나 내 감정대로만 믿으려 하면 신앙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수업 과정과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야 할 은혜가 많기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배운 말씀에 따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3번째 수업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해 주신 유부연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Y**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친밀감



염선영 성도

2년 동안 어성경에 참여하며 참 많은 생각과 변화의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은 지식을 넘어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지치고 하지말까? 하는 유혹의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조금은 더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체계는 큰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배워가야 할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어성경 전과 후를 비교해보자면 사람도 친하게 알아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아갈수록 더 친밀함이 생기고 삶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이 더 느껴집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어성경에서는 한 주 공부가 끝나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진주와 같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주나눔이라고 합니다. 저의 진주나눔입니다.

구약1과 속 진주 : 역사 속에서 늘 함께하셨고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조차

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2과 속 진주 : 진화론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알게된 시간, 감사합니다. ‘너는 나다’를 잊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되길 소망합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며 :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결국 메시아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약 1과 속 진주 : 신약을 통해 세계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6과 속 진주 : 죄인일뿐인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양같은 염소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증인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되길 소망합니다.

신약 10과 속 진주 : 바울의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보며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미래까지 내다보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게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있지만 바울의 믿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Y



신임교역자 소개



박목은 목사

살롬! 안녕하세요. 박목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암지를 통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임하자마자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 성도님들과 직접 마주할 시간이 적어 아쉬움이 있었습니

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 앞으로 성도님들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큼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초등학교 2학년 때, 목회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하였고, 신학대학원과 예배·설교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 부서의 교사였던 아내 전진슬 사모를 만나 결혼하였고, 올해 7월이면 두 돌이 되는 아들 이진이가 있습니다. 이진이의 이름에는 저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怡(기쁨 이)’, ‘眞(참 진)’을 써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참된 기쁨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진’을 거꾸로 하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가정의 작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동구의 무학교회에서 6년간 사역했고, 이후 용두동의 광석교회에서 또 6년의 시간을 보낸 뒤 오늘 영암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영암교회는 아버지 시절부터 한국 교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교

회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임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곳 영암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더없는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겠지만, 언제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칼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암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장의 날들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Y**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이옥영 목사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영암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이옥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겠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서 늘 고백하듯이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돌보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으로 청년시절을 지내며 자연스레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20-30대 청년들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과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과 공

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며 함께 웃고 울었고, 믿음의 성장과 회복의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쯤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 시간, 영암교회 청년들의 그 시간에 곁에서 말씀과 기도로 지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있어 찬양은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찬양 인도가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암교회 성도님들과 찬양을 통해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회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임 후 찬양 인도 했던 금요기도회와 청년들과 함께 했던 예배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계시던 성도님들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청년들을 보며 영암교회에서의 허락된 시간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Y

첫사랑, 영암교회 고등부



나은채 전도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글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고등부 사역을 시작한 나은채 전도사입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국어교육이었습니다. 청소년과 국어를 사랑하여 지난 1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한 영혼, 한 영혼은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것도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로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영암교회 고등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게 영암교회 고등부는 ‘첫사랑’입니다. 흔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미 넘치는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역시 세상의 통념을 깨는 놀라운 사랑을 주고받는 곳임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역자로서 저의 경험은 시작 단계이지만, 영암교회 고등부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만나본 청소년들 중 가장 반짝이고 아름다우며,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아끼는 예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어 하고 자신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해석해내고자 애쓰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선생님들 또한 고등부의 큰 자랑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마음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 서툴고 젊은 전도사를 믿어주시고, 온맘 다해 동역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지지와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암교회 고등부를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 밀어주신다면, 저 또한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영암교회



백양선 전도사

사랑합니다.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림이 영암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부임하여 초등2부를 섬기고 있는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영암교회에서 첫 겨울과 봄을 보내며,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환대와 아이들의 밝은 미소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질문이 생기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여러 궁금증은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넓혀주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장신대 신학과로 인도해주셨으며, 첫 사역지로 주님의교회(청소년부서 7년)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영암교회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님께서는 제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씀을 저의 삶의 문장으로 삼아 삶과 사역의 방향성으로 여기며 붙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영암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도 그런 부족함을 영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암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이자, 영암교회 한 공동체원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이시고, 다음은 그 향기를 따라 피어난 ‘영암교회’이며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어 갈 ‘다음세대’라는 꽃입니다. 영암교회에 아름답게 핀 다음세대를 위해 이미 많은 기도와 격려,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 다음세대가 중요한 시기인만큼 이전보다 더 큰 기도와 격려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다음세대’ 그 중에서도 ‘초등2부’라는 아름다운 꽃밭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큰 기쁨으로 한주, 한주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2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예배드린다고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섬기고 있지만,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해 함께하기로 결단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초등2부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⑦

누가 잠을 두려워하라!

-기독교인의 임종이 다른 이유-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알아두면 좋은 두 사람의 죽음학자

‘웰다잉’을 배우든 ‘죽음학’을 배우든 죽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 1926~2004) 박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알폰스 디켄(Alfons Deeken, 1932~2020) 일본 죠치대학(上智大學) 교수이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치료(cure)’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에게 ‘돌봄(care)’을 제공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사상가 100인’에 오른 인물이다. 특히 2만 여명의 임사 체험자들을 면담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물질 중심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변화시키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폰스 디켄 교수는 인생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 준비 교육’을 사회에서 실천한 예수회 신부이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결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두 사람은 말기 환자들의 임종을 관찰하며 심리의

변화를 분류하고 특정지음으로써 호스피스 간호학의 발전에 매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는 여섯 개의 계단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 심리 변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 박사의 ‘죽음의 심리 과정 5단계’를 떠올리기 쉽다.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할 것이란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죽을 거란 사실을 부인(denial, 1단계)한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면 ‘왜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라는 의문과 함께 분노(anger, 2단계)의 상태를 경험한다. 분노가 수습이 되면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의료진이나 운명, 신 등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며 타협(bargaining, 3단계)을 거치게 되고, 이어서 심한 우울(depression, 4단계)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죽음을 수용(acceptance, 5단계)하는 데 이른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완성된 ‘죽음의 심리 과정 5단계’는 호스피스 사역이나 오늘날 모든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일에 쓰일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알폰스 디켄 신부는 이 ‘5단계’에 더해 ‘기대와 희망(anticipation and hope)’이라는 기독교적 인격과 신앙 성숙에 초점을 맞춘 ‘죽음의 준비 과정 6단계’를 제시했다.

종교(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6번째 단계는 마치 소풍가는 아이가 전날 밤 내일은 즐

거음이 가득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잠자리에 들 듯이 임종을 맞이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남아있는 가족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부활의 소망을 담은 말을 남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6번째 단계가 주는 위로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겪는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남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진통 끝에 만날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며, ‘기대와 희망’에 찬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평소에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소풍 전날 밤에 잠자듯이 맞이하는 임종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1학년 봄소풍 가기 전날 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저녁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부엌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첫 소풍을 위해 김밥 재료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다.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입에는 군침이 돌고 마음은 벌써 먹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손자 소풍을 위해 ‘니쿠사쿠(일본어로 배낭, 즉 rucksack을 부르는 말로 일제를 경험한 노인들은 당시 이 용어에 익숙했다)’를 사다 놓으셨고 나는 그 속에 사이다며 과자 같은, 평소에는 입에 대기조차 어려운 간식거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담임선생을 위해 동네에 하나밖에 없던 통닭집에 닭을 한마리 맞춰놓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내일이 와야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덟 살 먹은 아이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잠을 자야 내일이 올 수 있다! 아이는 저녁 8시가 되기 전부터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잠자리였다.

죽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이해는 ‘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5:39)라고 말씀하셨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60). 기독교인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꿈꾸며,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이다(살전 4:14).

밤에 잠자리에 드는 아이가 공포에 떨지 않는 이유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에 깨어날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임종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짧은 수면과 같다. 가장 찬란한 이별을 준비하며 부활을 믿는 자의 임종은 ‘굿바이(Goodbye)’가 아니라 ‘씨 유 어게인(See you again)’이다. 죽음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전15:55). 우리는 다만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가장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이다.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딸아이가 7살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아빠, 신기해. 잠잘 때 말야, 눈을 뜨면 아침이야!” 우리 모두 마지막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기를 소망해 본다. **Y**

[2026년 상반기]

신년주일(성찬식) · 향존직은퇴예식(오후) 1월 4일(주일)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1월 5-7일

제직수련회 · 장로헌신예배(오후) 1월 18일(주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1월 23일(금)-25일(주일)

대광중 체육관 주일 예배 시작 1월 25일(주일)-6월 7일(주일)

중등부 겨울수련회 1월 30일(금)-2월 1일(주일)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 1월 31일(토)-2월 1일(주일)

청년부 겨울수련회 2월 5일(목)-7일(토)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2월 21일(토)

선교주일 · 독일 선교보고 3월 15일(주일)

소그룹 리더 수련회 3월 18일(수)-19일(목)

세례입교식 3월 22일(주일)

종려주일(성찬식) 3월 29일(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30일(월)-4월 3일(금)

성금요일예배 4월 3일(금)

부활주일예배 4월 5일(주일)

기쁨의 50일(영암성경필사신청) 4월 5일(주일)

영암전도대 상반기 개강 4월 7일(화)

자립대상교회방문(상원교회, 하늘기쁨교회) 4월 7일(화)

영암성경필사 4월 12일(주일)-5월 24일(주일)

늘푸른대학 봄소풍 4월 30일(목)

유아세례식 5월 3일(주일)

어버이주일 5월 10일(주일)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5월 13일(수)-23일(토)

영암전도대 종강 5월 26일(화)

장학헌금주일 5월 31일(화)

환경주일 · 대광중 체육관 마지막예배 6월 7일(주일)

교회 본관 대청소 6월 13일(토)

교회 소예배실 주일 예배 재개(1,2,3부) 6월 14일(주일)

6.25 기념주일 6월 21일(주일)

전도부 연곡소망교회(자립화대상교회) 방문 6월 24일(수)-25(목)

소그룹 리더모임 종강 6월 27일(토)

영암 뉴스 사역일정



항존직 은퇴예식



제직수련회 장로헌신예배



소그룹리더수련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영암성경필사



늘푸른대학 봄소풍



종교개혁지 순례



소예배실 주일 1,2,3부 예배 재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라희
(청년)



김준우
(청년)



김철원
(3040)



문소현
(청년)



박세리
(청년)



박철민
(3040)



최시리
(3040)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